

[종합·해설]



고향 잘 다녀 오십시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역에서 설날을 맞이해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환송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비롯한 소속의원들도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객에게 환송 인사를 했다. /연습뉴스



연습뉴스

‘용산참사’ DJ 발언 공방

정치권은 23일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전날 용산 재개발 지역 사망사고와 관련 경찰 과잉 진압을 비판하며 민주당의 투쟁을 강조한 발언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국가원로의 발언을 놓고 트집잡기에만 골몰하는 것은 ‘용산 만행’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전환시키기 위한 필수 중의 필수이자 삼부 야당 같은 승승”이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민을 보고 얘기해야 하는데 아직도 라이벌 의식이 발동하는 것 같다”고 역공했다.

YS “선동·파괴적인 언행 비난”

민주 “원로 발언 트집만 잡나”

김 전 대통령 최측근인 박지원 의원이 “정치나 정부의 존재 이유는 어렵고 소외받는 국민을 위해서인만큼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 정당으로서 그런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정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국가원로로서의 우려를 정치공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주당의 현주소로, 차제에 민주당 간판을 내리고 ‘DJ당’으로 개명하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 전 대통령의 뜻이 왜곡돼선 안된다고면서도 “자칫 전직 대통령의 현실정치 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지경기자·연습뉴스jpark@

설 민심 쟁탈전 금배지 총동원령

2월 국회·4월 재보선 등 향후 정국 판가름

與 ‘용산참사’ 수습 주력·野 특검 도입 부각

여야가 ‘용산 참사’를 고리로 설 연휴동안 민심 잡기 총력전을 펼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에 이어 ‘특검 도입’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여론전을 펼친다는 전략인 반면 한나라당은 사고 수습과 정책 대안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을 부각시키며 싸늘해진 민심을 되돌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심 수습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명절을 앞두고 ‘용산참사’라는 대형 악재가 찾아 지역 상인과 영세민들의 생활상을 살피는 한편 정치권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23일 남광주

이에 반해 민주당은 설 연휴 전날인 23일 귀향객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쳤다. 특히 설 민심이 2월 국회와 4월 재보선 등 향후 정국의 향배를 좌우하는 열쇠라고 보고 용산 재개발지역 사망사고 쟁탈전을 이어가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의 공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역으로 총출동, 역사나 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용산 사고에 대한 정권 차원의 책임론을 집중 거론하며 설민심을 공략했다. 정세균 대표는 용산 사고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이 뒤따라야 한다”며 “지휘 책임에 있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추궁하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설 연휴 기간 구청 홍보를 위해 당부 3만부와 함께 ‘MB악법 저지’와 민주당의 경제위기 극복 약속을 담은 두 종류의 정책홍보물을 제작했다. ‘MB악법 저지’ 홍보물의 경우 현재 10만부를 찍어냈는데 인쇄 물량을 더 늘릴 계획. 또, 설 연휴 기간 지역구 의원 1명당 원외 지역구 2곳까지 추가로 맡아 의정보고회와 핵심당원 간담회 등을 여는 등 밀착 귀향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강기갑 대표는 이날 오전 한남대 순천향대병원내 용산사고 사망자 분향소를 방문한데 이어 오후 사흘간 인근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설 연휴를 맞아 23일부터 일제히 지역구에서 귀향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18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개인적인 의정 활동 홍보 뿐 아니라 당의 ‘MB악법’ 저지 활동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설 민심이 향후 2월 임시국회 정국을 결정짓는 변수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인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23일부터 송정 5일시장과 우산 도깨비시장, 월곡시장 등 지역내 재래시장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차례로 돌며 찾아 지역 상인과 영세민들의 생활상을 살피는 한편 정치권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23일 남광주

재래시장·복지시설 찾아 민생현안 청취

지역 국회의원 설 연휴 귀향 활동

시장을 방문해 변형희 임원들로부터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동구청 환경미화원들과의 간담회, 사회복지시설 방문, 핵심 당원 간담회를 잇따라 갖는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22일 귀국한 5선의 김경진 의원(광주 서구을)은 23일 오후 광주시 서구 금호동 서창농협 분점 3층 대회의실에서 ‘방미활동귀국 의정보고회’를 갖고 귀향 활동을 시작했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종교시설 등을 돌며 지역구민을 만날 계획이다.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은 연휴 기간 내 내 지난해 반민주악법 철폐 운동과 입법 활동, 지역 예산 확보 실적 등을 홍보하는 한편 지역민들의 민생 현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27일에는 광주YMCA에서 열리는 민주인사 합동 세배에 참석한다.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승용 의원

(여수 을)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새벽 시장을 재래시장을 방문해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청취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를 모색할 계획이다.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연휴 동안 지역 농어축산민의 애로 사항을 듣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무소속인 강은태 의원(광주 남)은 사회 복지시설과 경찰서 지구대, 소방서, 경로당, 재래시장 등을 두루 찾기로 했으며, 이은재 의원(무안·신안)은 지역구 구석구석을 돌며 농어업 현장의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김석기 내정자 거취 설 이후 결정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안해 직사장의 보신주의 관행 등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내정자의 거취는 용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뒤에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조사 결과 김 내정자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자진 사퇴도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 관계자는 연휴 이후 사퇴 여부에 대해 “진상 규명 결과가 나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으나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구성 연휴 이후 적절한 시점에 사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Includes contact info: 062-222-8446, H.010-3686-8446. Lists various properties like 아파트, 토지, 다세대, and 오피스텔 with prices and location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셋코리아. Includes contact info: 062)236-3400. Lists various properties like 아파트, 토지, 다세대, and 오피스텔 with prices and locations.